

폐교 이후의 송실과 전통의 복원

이제우*

- I. 서언
- II. 대학에서의 전통이란? - 정체성의 확립과 명문대학으로의 도약
- III. 평양송실 개교와 폐교의 역사적 의의
- IV. 서울송실의 재건과 전통의 복원
- V. 결어

I. 서언

초창기 한국 기독교대학이 기독교정신을 소개하기 위한 계몽적 역할을 자임하며 인간존엄의 정신을 자각시키고, 해방 이후에는 기독교 관련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가와 행정책임자들이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서서 교육법제정과 대학교육의 목적설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많은 대학들 사이에서 그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면,¹⁾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기독교대학의 사명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대학의 수량적 팽창과 외형적 발전의 경쟁적 추구와 최근의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교육개혁의 평가 등은 기독교대학으로

* 송실대 중문과 교수

1) 조의숙·최지운, 『역사적 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기독교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평가』, 고헌경 (편), 『한국 기독교대학 교육내용의 기능과 성격에 관한 종합적 연구』, 서울여자대학 출판부, 1973, 9-10쪽 참고.

하여금 은연중에 일반 대학의 발전목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획일적인 교육기관으로 존속토록 한 감이 없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는 현대사회의 문화적·기능적 경향에 의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숭실대학의 창립정신은 진리의 탐구와 봉사의 정신 그리고 자유의 구현이고, 여기에 기초한 숭실대학의 교육목표는 언제나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인격인, 사회에 유용한 직업인,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적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대학은 학문적 수월성과 신앙적 순수성을 동시에 지향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너나 할 것 없이 학문적 수월성을 더욱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학의 일차적 목적이 학문연구인만큼 결코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이 그것과 함께 기독교정신의 이념 하에 박애와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근대 여명기 기독교 복음전파와 민족부흥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안고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우뚝 섰던 숭실대학은 1938년 일제가 민족사학 탄압과 기독교교육 축출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신사참배 강요에 의연히 반대하고 폐교의 길을 선택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동문들은 평양에서 숭실 재건을 꾀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결국 1954년 서울에서 재건의 첫발을 내딛고 1957년 현재의 상도동 캠퍼스를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기독교대학의 선봉으로서 숭실대학은 올해로 개교 115주년, 재건 58년을 맞이한다. 다른 대학이 겪어보지 못한 그동안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날의 숭실대학은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음을 자타가 공인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최초에서 최고로”라는 우리의 슬로건이 시사하듯이 최초의 대학이 최고의 대학을 지향함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요 순리임을 자각해야 한다.

본고는 평양숭실의 개교와 폐교의 역사적 의의 및 서울숭실 재건의 과정을 살펴 숭실대학의 역사적 전통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기약하고자 논의와 제의를 전개한다.

II. 대학에서의 전통이란 - 정체성의 확립과 명문대학으로의 도약

서울대학교병원은 2010년 4월호 병원소식지에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고, '제중원이 서울대병원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濟衆院은 1885년(고종 22년) 미국인 선교 의사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 한국 이름은 安蓮, 후에 王室附 侍醫官으로 임명)에 의해 건립된 廣惠院으로, 개원 후 곧바로 濟衆院으로 개칭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이다. 문제는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주장이 그동안 '제중원을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으로 여겨왔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측에서 볼 때는 '노골적인 도발'이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위 소식지의 글에서 "제중원은 고종과 조선정부가 1885년 서양의학 도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최초의 서양식 국립 병원"이라며 "1894년 미국 북장로회에 이관되기까지의 제중원은 100% 국립 병원인데도 사립대인 연세대가 국립병원의 역사까지 자기 학교로 인식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일제시대를 공백으로 비워놓고 조선시대의 '국립'이란 표현에만 집착하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하고, "서울대병원이 시대와 설립주체를 초월해서 모든 국립기관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선의 역대 왕들을 자신의 조상이라며 종묘에 가서 제사지내겠다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대가 "廣惠院은 첫 국립의료기관인만큼 국립 서울대병원이 역사를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고종이 세운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혜원(1885)'이나 근대 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1895)'를 서울대의 효시로 정해 개교 시점을 앞당기는 본격적인 校史개정 작업에 착수하자, 그동안 광혜원을 세브란스병원의 모체라 여기고 광혜원이 설립된 1885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아온 연세대가 "서울대가 역사적 연결고리도 없는 광혜원을 무리하게 자교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한다”고 발끈하며 “광혜원이 문을 닫기 1년 전인 1903년 광혜원의 의료진과 시설 등이 세브란스로 모두 넘어온 만큼 광혜원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은 자신들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校史와 관련한 두 대학 간 역사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이 두 대학 간의 논란은 몇 달 뒤, 서울대의 최종 의결기구인 평의회회가 “종합대학교로서 서울대가 개교한 것은 1946년(개교연도)이지만 대학교육의 연원이 시작된 것은 1895년으로 이를 ‘개학연도’로 설정”하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어정쩡하게나마 일 단락된 듯하다.

이처럼 대학이 자신들의 역사를 늘리려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 식민지시대에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회구하여 신천지를 찾아 떠났던 미국 개척자들이 고등교육의 실시 없이는 마침내 한 사람의 목사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우려하여 세운 학생 9명의 목사양성소가 출발한 1636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음으로써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게 된 하버드대학 등 외국의 사례로 보아 그러한 주장은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1895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을 경우 일제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이 고스란히 서울대 校史에 편입될 수밖에 없어 이는 광복 이후 자주독립 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한 서울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이견이 만만치 않아 校史 개정과 관련한 학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대학은 왜 그들의 역사를 앞당기려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최초’를 주장하는 대학들이 다수 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 대한민국 종합대학교 1호라는 이화여자대학교,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대학 고려대학교, 최초의 서양식 의과대학 연세대학교이다. 그러나 이처럼 ‘최초’에 대한 해설이 서로 달라 이른바 ‘최초’의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시점 또한 현재 모습이 아닌 그 부분적인 일부 前身이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아닌 초중등교육기관이었던 母胎를 시발로 하고 있어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어리

등절해 하고 급기야는 미심쩍은 의구심을 자아낼 뿐이다. 실은 우리 숭실대 학도 이 '최초'의 대열에 끼여 있다. 숭실대학의 '최초'에 붙는 말은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이다. 여기서 '근대대학'이란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완전한 4년제 대학과정을 갖춘 대학을 말한다. 이처럼 이들 대학이 '최초'를 주장하는 까닭은 그들이 내건 슬로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한결같이 "최초에서 최고로", "the First & the Best", "한국의 대학을 넘어서 세계의 대학으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구한 역사전통이 곧 우수한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서 한국 최고의 대학, 나아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겠다는 대내외적인 의지의 표방이자 그들 대학이 가진 유무형의 역량의 과시인 것이다.

대학교육의 역사가 말해주듯 이른바 '명문대학'이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는, 명문대학은 대부분 유구한 역사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요, 둘째는 명문대학은 다수의 우수한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셋째는 명문대학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각 방면의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대학들은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우수한 교수들 초빙하고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개교의 역사가 길든 짧은 나름대로 전통의 계승·발양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을 말한다. 대학의 전통을 말하기 위해 먼저 대학의 기원을 살펴보면, 서양의 경우는 처음부터 국가 통제의 학교교육보다도 私的 통제의 학교교육이 교육적 전통을 주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도, 춘추전국시대에 중앙의 國學이나 지방의 鄉學 등 공교육제도가 문란해지자 孔子 등 이른바 諸子百家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받아 훈육함으로써 마침내 私學이 발전하게 되었

다든가, 고려시대에 연이은 전란으로 인해 官學이 부진해지자 崔冲을 비롯한 많은 人士들이 애국의 충정에서 私學을 세워 十二徒가 되었다거나, 조선조 中宗 때부터 書院이 대량으로 발생한 점 등으로 私學의 역할은 官學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사학의 전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첫째는 국가 고등교육의 선구로서 교육을 주도해 온 ‘主導性’, 둘째는 때로는 ‘護國性’의 의미를 띠기도 한 진리탐구를 위한 ‘自主性’, 그리고 셋째는 교육 발전의 추구 또는 민족수난의 극복을 위한 ‘創憲性’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대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교육적 시사점은, 단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이념과 유형을 지향하는 대학의 창립에 힘쓴 나라라는 다음 시대에 반드시 선진국의 반열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대학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긴밀한 관련성은 학문을 위한 학문의 대학이었던 베를린대학을 본떠 사회봉사적이며 실용주의적 대학이라는 새로운 이념과 유형의 대학들을 건설한 미국을 명실 공히 오늘날의 세계 최정상 국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입증된다.²⁾

특히 개별 대학들이 가진 그들만의 전통은 곧 구성원들에 대하여 대학집단에서의 귀속의식,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자신들과 타 대학집단 사이의 독특성, 차별성을 띠게 만들어 그들 존재의 본질을 자각하는 그들만의 正體性을 확립시켰다. 대학마다 고유한 학풍과 분위기가 있고, 이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과 저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공·사적인 일을 막론하고 그 기질과 스타일 면에서 구별되는 것은 모두 그들 대학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형성된 그들 존재의 정체성의 영향이 은연중에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오늘날 발전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먼저 대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통을 바로 알며,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진정한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기약하는 것이다.

2) 이상 私學의 전통에 관한 기술은 한기인, 『大學의 理念』, 한국학술정보, 2005, 21-23쪽, 49-53쪽을 참고.

Ⅲ. 평양승실 개교와 폐교의 역사적 의의

1.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조선문화의 연원지, 사회·정치문제의 중심지, 학술용어·스포츠·服飾의 모범)

승실대학의 역사는 1897년 10월 10일 평양부 신양리 26번지 베어드(William.M.Baird, 한국 이름은 裴緯良)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13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崇實學堂'에서 시작되었다. 베어드 박사는 1897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참된 교사와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승실학당의 문을 열었다. 승실학당은 1898년 가을 학기에 학생모집 공고를 내 응시자 60명 중 18명을 선발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1900년 가을 신학기부터는 수업연한 5년제의 정규 중학교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1904년 5월 정규 중학과정을 이수한 3명의 졸업생 盧敬五·車利錫·崔光玉을 배출했다.

이들 졸업생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베어드의 주도 아래, 1905년 기독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는 공동으로 대학교육을 실시할 것과 평양에 연합대학을 설립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한 가운데 그해 이미 제2회 졸업생을 배출한 승실학당은 장로교 선교부의 허가를 얻어 이들 졸업생들에게 대학과정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1905년 승실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1906년 9월 신학기에 승실학교는 1학년과 2학년 12명의 학생으로서 정식으로 '대학부'를 설치하고,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합동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했으므로 학교 명칭을 'Union Christian College'라 했으며, 한글 명칭으로는 '평양예수교대학교'라 했다.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Pyeng Yang Union College'라 쓰기도 했고, 당시 신문에서는 '평양대학교'라고 했다. 1909년 이후로 학교 문서나 신문들이 교명을 '평양승실대학교'라 표기하여 '승실'

이란 이름이 보편화되었으며, 대학과 중학을 합칭하는 경우에는 ‘평양숭실대·중학교’ 또는 ‘평양숭실학교’라고 했다.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인 ‘평양숭실대학’은 그 명칭뿐만만의 대학이 아니라 4년제 교과과정의 완전한 대학이었다. 1906년 9월 평양숭실대학이 설립된 이후, 한일합방 이전 1910년 4월에는 이화학당에 대학부(이화학여자대학교 전신)가 설치되고, 1915년 3월에는 경신학교에 대학부(연세대학교 전신)가 설치되어 1924년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3개의 근대적 대학기관이 있었고, 그중에서 평양숭실대학이 최초의 대학으로서 ‘기독교적인 심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표방하면서도 문학이나 예술·자연과학·역사·물리·수학·음악 등 다양한 학문영역을 포괄적으로 교수함으로써 근대 지식을 갖춘 전인적 인간 양성에 노력했다.

숭실대학 졸업생명단에 의하면, 평양숭실대학은 1906년 창설 이래로부터 1925년 전문학교로의 강제 개편을 거쳐 1938년 폐교될 때까지 대학 졸업생 152명, 전문학교 졸업생 291명, 총계 4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시대 평양숭실대학의 위상에 대하여 잡지 『朝光』은 1937년 2월 호에서 전하기를, 숭실대학생은 ‘조선의 지도자적 존재’였고, 숭실대학은 ‘조선문화의 연원지’, ‘사회·정치문제의 중심’, ‘학술용어·스포츠·의복 맵시의 모범’으로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동경하는 목표’였다 했다.

2. 기독교정신과 민족정신의 결합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인 평양숭실대학은 기독교 선교부가 주체가 되어 세운 기독교대학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설립된 것이 아니고, 평양 주민들의 대학교육을 위한 모금운동에 힘입어 설립되었다. 당시 평양 주민들이 수일 동안에 거출한 헌금은 6,000여원으로 추정되며, 그것은 당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액이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숭실대학의 설립주체는 기독교 선교부와 평양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을사조약 이후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평양승실대학이 1906년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국인을 위한 기독교정신과 평양 주민들의 교육구국을 위한 거대한 모금에 힘입어 설립된 것은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이 '평양 주민의 대학' 또는 '민족적 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이 일제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의 단순한 회사물도 아니며, 우리 민족의 주체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이다.

3.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승실대학은 일제의 여러 교육 악법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다.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항하며 기독교정신 함양과 민주의식 고취에 주력했다. 결국 일제의 식민지교육제도 강요로 말미암아 1925년 전문학교로 개편되었으나, 승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내실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발전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전문학교로 개편된 이후 대강당·기숙사·본관 신축 및 증축으로 교육시설을 완비해 나갔으며, 1931년에는 농과를 설치하여 한국 농촌부흥과 농민운동을 담당할 농촌지도자들을 배출했다. 최고 교육을 통해 승실이 배출한 인재들은 교역자·교사·음악인·학자 등으로 활동했으며, 상당수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말 민족운동·조선국민회운동·3·1운동·광주학생운동 등의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1931년 일제는 만주시변을 일으키고 국민정신 총동원을 구실로 한민족에게 일본신사에 참배를 강요했다. 신사참배는 한민족에게 일본천황의 조상과 일본의 전쟁영웅을 경배토록 하여 한민족의 얼을 마비시키고 한국인의 기독교신앙을 파괴하려는 한민족말살정책이자 종교탄압정책이었다. 일제 당국은 기독교학교에 대해 신사참배와 폐교 중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신사참배의 허용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고, 신사참배의 거부는 기독교학교의 폐교로 낙착

되는 상황에서 천주교는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에 응했고, 감리교도 총독부의 지시에 응하여 그 산하 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에 참배하게 함으로써 학교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장로교 선교회가 신사참배 거부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숭실전문학교는 장로교 산하 다른 학교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38년 3월 자진 폐교했다.

요컨대 평양숭실대학은 개교로부터 폐교할 때까지의 40여 년 동안 민족대학으로 설립되어 한말과 일제시대에 시종 민족독립운동의 총본산이 되었으며,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에 맞서 폐교함으로써 기독교 신앙과 민족정기를 수호하고 기독교대학과 민족대학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했다.³⁾

IV. 서울숭실의 재건과 전통의 복원

숭실대학 재건운동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시작되어 1945년 9월 초, 숭실대학 졸업생 60여 명이 평양시 서문 밖 교회에 모여 대학의 재건을 결의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북한지역에 진주하고 공산당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평양에서의 재건운동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숭실대학 건물은 1950년 가을에 6명의 선교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까지도 학교 건물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하나, 6.25전쟁 중인 1951년 중공군의 개입 후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평양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자 숭실 교우들은 자유를 찾아 남하했고, 이후 재건운동은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남하한 숭실 교우들은 전 숭실대학 이사였던 이인식(李仁植) 목사를 중심으로 서울에 모여 선교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에 착수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에 모였던 교우들이 피난을 떠나게 되면서 재건운동은 잠시 중

3) 이상 『평양숭실 개교와 폐교의 역사적 의의』 부분은 유영렬, 『민족과 기독교와 숭실대학』, 증보판, 제4쇄,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7, 9-17쪽을 참고.

단되었으나, 서울 수복 후 재건운동은 다시 시작되어 1953년 송실대학 재건을 위한 ‘송실재건확대위원회’, ‘송실대학재건기성회’, ‘송실대학재단이사회’가 차례로 조직·개최되었다.

1954년 이사회에서는 대학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재단법인 인가원’과 ‘학교설립인가원’을 문교부에 제출했다. 교사와 기타 모든 학교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건을 청원한 상황이었으므로 불안하게 그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염려와는 달리 인가원이 중앙교육위원회에 상정되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것은 과거 송실대학이 일제의 치하에서 민족독립운동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신학문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는 송실대학이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여 재건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방 이후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지만 아직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당시 송실대학과 같은 전통 있는 대학이 재건되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했던 것이다.

안건 통과에 찬성하는 발언들의 요지는 모두 과거 송실대학의 운명과 민족의 비애를 담은 내용들이었다. 밖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송실대학 관계자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송실대학이 이 땅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며 어떤 수난도 피하지 않고 진리와 봉사의 신념으로 임무를 다하려고 힘써온 과거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다.

송실대학 설립 청원이 중앙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954년 4월 12일에 ‘재단법인 송실대학’의 인가를 받았고, 이어 4월 15일에는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1938년 3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폐교된 지 만 16년만인 1954년 4월 12일에 중앙교육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송실대의 재건이 확정되고 4월 15일에는 마침내 정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나라 근대교육기관으로서 서구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신교육의 선구자

적 역할을 하던 송실대학은 민족의 비운을 한 몸에 짊어진 듯 일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이처럼 다시 부활한 것이다. 진리탐구와 사회봉사의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송실대학이 그 본향인 평양 터전을 공산당들에게 빼앗기고 서울에서 재건되었지만 그 이념과 전통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계승되었다. 송실대학의 재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교회들과 뜻있는 사람들은 감격의 기도를 올렸고, 이 나라의 장래는 또 다시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1954년 4월 16일 裴敏洙 이사장 자택에서 문교부의 인가를 얻은 ‘재단법인 송실대학’의 첫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학교 부지를 용산동으로 내정하고 임시 교사를 영락교회로 정했으며 이사회와 학교의 여러 기구와 교수진을 정하고 개교 준비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송실대학은 영락교회 부속건물을 임시교사로 하여 5월 10일 개교하였다가 1957년 현재의 상도동 캠퍼스를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때 재건된 송실대학은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하고도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有爲한 棟梁의 才를 완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했다. 이처럼 재건된 송실의 교육이념은 과거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⁴⁾

송실대학은 대학입학시험을 통한 우수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2005년 교무처 내에 ‘입학본부’를 두어 처음으로 대입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당시로서는 전국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내 입시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수험생과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의 대외적 홍보가 긴요하고도 시급한 일이었다. 이른바 ‘입시설명회’를 통한 학교의 본격적인 대외 홍보는 아마 개교 이래 그때가 첫출발이었을 것이다. 당시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며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송실대학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의 소재지, 심지어

4) 이상 『서울송실의 재건』부분은 송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송실대학교 100년사』, 전3권,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7, 제2권 서울송실편, 3-11쪽을 참고.

는 교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치와 분노와 염려를 함께 느꼈다. 대학 간의 입시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그로부터 3년 뒤, 2008년 교무처 소속의 입학본부가 입학처로 독립 승격되면서 홍보활동은 더욱 강화되어 지금까지 본격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진 지 10여년을 지나면서 승실대학은 전국 10위권 내 대학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승실대학이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설사 안다하더라도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려는 사람 또한 그리 많지 않으며 심지어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사람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혹자는 승실대학의 ‘최초’와 관련하여 폐교의 역사를 문제 삼는다. 2009년 6월 8일 자 『대학내일』의 『진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라는 기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前略) 문제는 승실대가 중간에 한 번 폐교됐다는 사실이다. 신사참배문제로 1938년 폐교하고, 해방 후 10여년이 지난 1954년에 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금 상도동 자리로 온 것은 57년 일이다. 폐교된 걸 문제 삼지 않으면 오히려 배재대가 더 빠르다. 배재대는 1885년 아펜젤러에 의해 정식으로 세워졌고 대학교육도 1895년에 시작했지만 1925년 일제에 의해 대학 과정이 없어졌다. 배재대는 최초의 대학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위 기사의 내용에서 1885년 ‘배재학당’으로부터 현재의 배재대학에 이르는 학사운영과정의 내용 및 그 연속성 문제와 ‘대학교육’이라는 대학의 기준 설정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둘째로 친다 하더라도 완전한 4년제 대학교육을 실시한 ‘최초의 근대대학’으로서의 승실대학에 대한 기사 작성자의 우회적 반박 태도는 다분히 부정적 뉘앙스를 띠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외자의 이러한 무지와 오해의 상황은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국외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련자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속성상 지나간 역

사는 덮어두면 잊히기 마련이며, 심지어는 타인에 의해 왜곡되고 찬탈당하기 까지 한다. 그 역사적 의의를 부단히 찾아내고 되새길 때 비로소 우리의 역사전통이 오늘날 도약의 발판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16년 숭실 폐교의 역사'는 평양의 숭실이 아니라 조선의 숭실로서 민족적 비운의 역사이며, 그것은 무기력한 패배나 소멸이 아니라 수호를 위한 단호한 저항이요 부활을 위한 의연한 순교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각성할 때 우리는 평양숭실과 서울숭실을 하나로 묶는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속에서 무한한 용기와 결단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숭실대학의 역사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우리 재학생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필자가 우리 대학 인문대학 재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1] 에 의하면, 1) 우리 학교 인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숭실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임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폐교의 길을 선택'했음을 잘 알고 있고(90~91%),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84~87%)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전통으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의 인식은 다소 떨어지며(70%), 실지의 행동지향에 있어서는 상당수 학생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45~47%). 2)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특히 우리 학교의 역사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학생들은 그 홍보와 인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78~79%)과 동시에 역사전통의 계승과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학교가 새롭게 도약해야 하고(70%), 스스로는 타 대학 학생들과 구별되는 미래지향적인 숭실인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75%). 4) 또 응답자 235명 중, [설문1]에서 1, 2로 응답한 학생, 즉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 및 정체성 인식의 정도가 높고, 이를 통해 그들의 실지 생활 속에서 발전적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학생은 78명으로 전체 학생의 83%를 차지한다. 5) 총 응답자 235명 중, [설문2]에서 3, 4로 응답한 학생, 즉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 및 정체성 인식의 정도가 낮고,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 및 정체성 인식을 통한 발전적 의지도

미약한 학생은 33~44명으로 전체 학생의 14.0~18.7%를 차지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 학교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불충분한 사실로서만 역사전통을 언급했지 그것을 그들의 생활을 통해 실지로 활용하여 유익함을 창출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특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역사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가 주목해서 볼 일이다.

V. 결어

송실대학의 창립정신은 진리의 탐구와 봉사의 정신 그리고 자유의 구현이고, 여기에 기초한 송실대학의 교육목표는 언제나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인격인, 사회에 유용한 직업인.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적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평양송실대학은 韓末의 민족적·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설립되어 개교 이래로부터 폐교될 때까지 줄곧 한말과 일제시대에 민족독립운동의 총본산이 되었고 전도계몽활동·농촌진흥운동 등 선교사업과 봉사활동에 앞장섰으며, 민족의 부흥을 위한 과학기술교육에 진력함으로써 민족적 자주와 자립 전통, 기독교적 박애와 봉사 전통, 진취적 미래 지향 전통을 형성하였다.

유구한 역사전통이 곧 우수한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실대학은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으로서 한국 최고의 대학, 나아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 특히 대학의 전통은 곧 구성원들에 대하여 대학집단에의 귀속의식,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자신들과 타 대학집단 사이의 독특성, 차별성을 띠게 만들어 그들 존재의 본질을 자각하는 그들만의 正體性を 확립시킨다. 오늘날 발전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먼저 대학의 역사를 연

구하고 전통을 바로 알며,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정체성을 굳건히 함으로써 진정한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기약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제의하고자 한다.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학사와 관련한 사무적인 사항을 설명하기에 앞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본질과 사명을 일깨워 주고, 동시에 본교 개교와 폐교의 역사적 의의와 본교의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소개와 의미 부여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본교 개교와 폐교의 역사적 의의는 신입 교수와 직원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장차 자신들의 영원한 모교가 될 송실대학이 학생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생업을 위한 단순한 직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적 인재를 길러내야 할 교육현장으로서의 송실대학이 교수·직원들에게도 높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송실대학은 진정한 민족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대학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되면 교육이념과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리와 봉사’라는 송실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고능력과 봉사정신을 구비한 창의적·현신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송실리더십인증제’를 도입하고, 한국 개화기로부터 국가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100년 송실의 교육이념과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정립을 목표로 하는 ‘송실학’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리더십인증제의 시행과 함께 교내 각 부서의 책임을 맡은 교수와 직원 및 각계각층의 외부 인사에 대한 리더십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송실리더십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3)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학교를 자진 폐교한 ‘16년 송실 폐교의 역사’는 평양의 송실이 아니라 조선의 송실로서 그것은 민족적 비운의 역사였다. 그것은 무기력한 패배나 소멸이 아니라 수호를 위한 단호한 저항이요 부활을 위한 의연한 순교였다. 이러한 송실 폐교의 저항정신과 순교정신

을 기념하는 행사를 다각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평양숭실’과 ‘서울숭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속에서 무한한 용기와 결단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校史 연구와 전통 계승을 위한 기존의 각종 활동과 행사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그 의의를 지속적으로 발굴·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근래 서울대가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내의 대한의원⁵⁾(1907) 시계탑 건물을 복원한 뒤 이를 의대와 병원 역사의 상징물로 내세우고, 대전의 한남대가 창학정신의 회복을 선언하고 초대학장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린튼의 한국 이름을 딴 ‘인돈기념관’을 1956년 개교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함으로써 ‘진리·자유·봉사’라는 창학정신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역사전통의 복원과 계승 작업이다.

아래 사진 [자료2] 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초창기의 숭실 교사로서 외형은 한옥 특유의 건축미를 살린 전통 한옥이고, 내부는 서양 학교의 구조를 따른 2층의 신식 건물이었다. 교사의 구조는 아래층에 교무실이 한 칸, 교실이 다섯 칸 있었고, 2층은 전체가 하나의 공간인 강당으로 예배실과 기도실로 사용되었다. 당시 이 2층 한옥 교사는 평양의 명물이 되어 구경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건물을 교내에 복원하여 ‘崇實學堂’이라 명명하고, 대외적으로는 숭실대학이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의 발상지’임을 재천명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최고’로 도약하기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신적 상징물로 삼을 것이다. 건물의 용도는 ‘홍보센터’와 ‘전시실’ 및 ‘리더십센터’와 ‘교육실’로 나눠 숭실대학의 대내외적 모든 홍보업무와 리더십교육을 담당토록 한다.

5) 1899년 大韓帝國의 內部病院이 설치되고 이듬해인 1900년에 廣濟院으로 바뀌었다. 1907년 이 광제원과 의학교는 폐지되고 大韓醫院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대한의원은 광제원의 업무를 인계한 이외 교육부와 위생부를 증설하여 서양의학에 의한 의료 및 의학교육제도를 확충하였다. 대한의원은 경술국치 후 1910년 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다. 대한의원은 오늘날 서울대학교병원의 前身이라 할 수 있다.

[자료1] 숭실대학교의 역사전통과 정체성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각 문항의 진술 내용이 당신에게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1에, '다소 그런 편이다'라고 생각되면 2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생각되면 3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4에 ○표 하십시오.

[설문1]

- 1. 나는 숭실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대학임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3, 4 응답자는 아래 [설문2]로 이동)
- 2. 나는 모교가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임이 자랑스럽다 1 2 3 4
- 3. 나는 숭실대학교의 정체성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3, 4번 응답자는 아래 [설문2]로 이동)
- 4. 나는 모교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 5. 나는 모교의 정체성을 통하여 스스로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1 2 3 4
- 6. 나는 숭실대학교가 과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한 사실을 알고 있다 1 2 3 4
(3, 4 응답자는 아래 [설문2]로 이동)
- 7. 나는 모교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한
사실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 1 2 3 4
- 8. 나는 모교의 역사전통과 정체성이 나를 다른 대학 학생들과 구별되는
자질과 태도를 가지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4 응답자는 아래 [설문2]로 이동)

[설문2]

- 9. 나는 모교의 역사전통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 10. 나는 모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 11. 나는 모교가 역사전통의 계승과 정체성의 확립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 12. 나는 모교의 역사전통과 정체성을 통하여 타 대학 학생들과
구별되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 1 2 3 4

[자료2] 초창기(1901) 승실 교사

